

중고등학생의 부모, 교사 및 친구 애착과 비행*

Adolescents' Attachments to Parents, Teachers, and Friends, and Delinquencies

이주리**

중앙대학교 아동복지학과

Ju Rhee Lee

Dept. of child-welfare, Chung-Ang University

Abstract

This study investigated the effects of the adolescents' attachments to parents, teachers, and friends on delinquencies. Participants were 3449 adolescents in middle and high school (2003-2006 panel 1 in Korea Youth Panel Survey). For analyses of research questions, frequencies, descriptive statistics, independent sample t-test, Pearson correlations and multiple regression were used. The results were as follows: For males, attachment to parents most influenced delinquencies in middle school but attachment to friends most influenced delinquencies in high school, however, for females, attachment to parents most influenced delinquencies in middle school and high school. Attachments to parents and teachers influenced delinquencies negatively, however, attachments to friends influenced delinquencies positively.

Key Words : attachments to parents, attachments to teacher, attachments to friend, delinquency

I. 서론

청소년기는 제 2의 성장급등기로서 호르몬의 변화로 성적발달은 물론 급격한 신체적, 인지적, 정서적 발달을 한다. 사회관계에서도 아동기와는 달리, 학교생활 등을 통해 의미 있는 타인과의 관계 형성 폭을 넓혀감으로써 부모 뿐 만아니라 교사, 또래 등과의 관계가 청소년의 생활에 더욱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렇듯 급속한 발달을 보이며 불안정한 시기를 보내는 청소년들은 발달의 내면화 또는 외현화 행동문제를 보일 수 있는데, 그 중 하나가 비행이다. 청소년기의 비행은 문화와 시대를 막론하고 항상 일어나고 있으나 최근에는 음주, 흡연 뿐 아니라 집단따돌림 및 폭행, 원조교제, 환각상태에서의 범죄 등 사회적 문제로 대두될 정도로 심각해지고 있다.

이러한 청소년의 비행에 영향을 미치는 심리 환경적

요인으로 크게 부모, 교사, 친구와의 관계를 들 수 있다. 이들은 청소년들의 일상생활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타자들로서, Hirschi(1969)의 사회통제이론에 따르면 이들과 맺게 되는 사회적 유대가 약할수록 비행을 저지를 가능성은 높아지게 된다. 사회적 유대는 '애착' 이란 개념으로도 설명될 수 있는데, 애착이란 의미 있는 중요한 타자와의 강한 정서적 유대감을 의미한다(Bowlby, 1958).

정서적 유대관계와 비행에 관한 연구는 대표적으로 부모와의 관계를 통해 많이 다루어지고 있다. 국내 이경숙 외(2004)의 연구에서 다양한 문제 행동들을 보이지만 학교에서는 이탈되지 않은 청소년들을 '잠재된 비행청소년' 이라 정의하였는데, 이러한 청소년들의 부모-자녀 관계의 특성을 살펴본 결과 이들은 일반 청소년들에 비해 부모로부터 애정을 적게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들의 일탈행동 무경험 집단과 경험집단 특성 간 차이를 분석한 김영희(2004) 외의 연구에서도 일탈행동 경험집단의 청소년

* 본 연구는 제4회 한국청소년패널 학술대회에 발표한 논문의 일부를 수정, 보완한 것임.

** Corresponding author: Ju Rhee Lee

Tel: 02) 820-5730

E-mail: julie@cau.ac.kr

년들은 부모로부터 정서적 지원은 더 적게 받았으며 부모의 양육태도 또한 더 부정적인 것으로 보고되었다. 뿐만 아니라, 부모와 의사소통이 자유롭고 활발하게 원활히 이루어질수록 청소년들의 비행 수준은 낮아지는(심응철, 2005) 등 부모와의 의사소통 수준도 청소년들의 비행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이외에 기광도, 이희길(2002)의 연구에서도 앞의 연구들과 일치되는 결과가 나타났는데, 부모-자녀 간 애착과 대화는 청소년들의 사소한 비행과 심각한 비행에 모두 부적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국외 연구에서도 부모의 심리적 통제를 받을수록 청소년들의 외현화 행동 수준이 높아졌으며(Barber, 1996), 만성적으로 부모로부터 신체적 혹은 정서적으로 학대를 당하거나 돌봄과 관리 등을 적절히 받고 있지 못하는 아동들은 자신, 또래, 교사보고에서 모두 더 높은 수준의 공격적 행동을 보이는(Bolger & Patterson, 2001) 등 부모에 대한 애착은 청소년의 비행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교사와의 정서적 유대가 청소년들의 비행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는 부모보다는 상대적으로 덜 이루어졌으나, 몇몇 연구들에서 역시 유의한 관련이 보고되고 있다. 교사가 자신을 적대적으로 대한다고 지각하거나 교사와 갈등을 경험하고 있는 청소년들은 심각한 일탈행동과 관련되어 있었던 반면(박영신·김의철, 2001; 김영희 외, 2004), 교사지지 혹은 애착과 같이 교사와의 긍정적인 관계는 청소년들의 비행과 유의한 부적 상관을 보였다(이은주, 2000; 이은희 외 2004).

청소년기는 또래관계에 민감한 시기이므로 친구와의 관계도 청소년들의 비행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대체적으로 또래들과 정서적으로 유대를 맺고 있지 못할수록 비행수준이 높아지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또래로부터 거절을 경험한 청소년들일수록 더 높은 비행행동 수준을 보였으며(Barnow, et al., 2005; Chapple, 2005), 국내 연구에서도 친구로부터의 거부는 공격적 행동, 비행 등과 유의한 관련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김인숙·이경남, 2004). 그러나, 반대의 연구결과도 보고되었는데, 이은주(2000)의 연구에서는 친구로부터 지지를 받고 있는 청소년들일수록 비행수준이 높아지는 등 친구지지와 비행 간 유의한 정적상관이 나타났다.

이처럼 부모, 교사 및 친구애착이 청소년들의 비행행동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그러나, 청소년들은 아직 성인이 아니기 때문에 여전히 성장 중이라는 점을 고려해 본다면, 이러한 부모, 교사 및 친구애착의 영향들은 연령별로 다르게 나타날 수 있음을 생각할 수 있다. 청소년의 문제행동에 미치는 사회적 지지원의 영향을 살펴본 양돈규, 임영식(1998)의 연구에서 중학생의 비

행행동을 예측하는 사회적 지지원은 교사의 영향이 가장 크게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 부모, 친구 순이었다. 반면, 고등학생의 경우 중학생과 마찬가지로 교사의 영향이 가장 크게 나타나긴 하였으나 그 다음으로 중학생과 달리 친구, 부모 순으로 나타나 연령이 높아질수록 상대적으로 부모의 영향력은 낮아지고 친구의 영향력은 높아졌다. 박영신, 김의철(2004)의 연구에서도 부모, 교사 및 친구의 영향이 연령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는데, 연령이 높아질수록 부모와 교사의 영향은 낮아지는 대신 친구의 영향은 높아지는 등 양돈규, 임영식(1998)의 연구와 교사 영향과 관련하여서는 다른 결과를 보였지만 부모 및 친구의 영향에 대해서는 같은 변화가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들을 볼 때, 부모, 교사 및 친구애착이 비행에 미치는 영향이 각 학년마다 각각 어떻게 달라지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특히, 같은 청소년기라 하더라도 초·중기 청소년기인 중학생과 성인기에 가까워지는 고등학생들의 발달양상은 각각 다르게 나타날 수 있으므로 이러한 필요성은 더욱 커진다.

한편, 부모, 교사 및 친구애착의 영향은 발달단계 뿐 아니라, 남학생과 여학생에게서도 각각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국 청소년들의 비행에 관하여 성차를 분석한 김현실(2002)의 연구에서 부모-자녀관계는 남학생들의 비행행동에 직접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쳤으나, 여학생들의 비행행동에는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다. 반면, 이상문(2005)의 연구에서 청소년들이 자신의 부모들과 어느 정도 가까우므로 측정된 '가족 유대'와 청소년 일탈행동 간의 관계에서 가족유대가 낮을수록 청소년들의 일탈행동 수준은 높아졌는데, 이러한 가족 유대의 영향은 자녀가 아들인 경우보다 딸인 경우 더 높았다. 교사 애착 및 친구 애착의 영향도 남학생과 여학생이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일반적으로 남학생들은 성취지향적 특성을 가지며 여학생들은 관계지향적 특성을 나타내는데, 이러한 차이로 인하여 남학생들에게는 교사 애착의 영향이, 여학생들에게는 친구애착의 영향이 더 많이 나타날 수 있다. 그러나 반대로, 최근 나타나고 있는 이른바 '알과겔' 현상과 관련하여 학교생활에 대한 여학생들의 능력과 욕구가 대체적으로 더 큰 분위기로 인하여 교사애착의 영향이 여학생들에게 유의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의미 있는 타자와 형성하는 정서적 유대관계의 관점에서 청소년의 비행에 부모, 교사 및 친구애착이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탐색하여 그 상대적 영향력을 검증하고자 하며, 이에 대하여 지금까지와는 달리 이러한 영향들이 학년별로 각각 어떻게 달라지는지 성별을 구분하여 남학생과 여학생의 경우를 비교해 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청소년의 비행행동에 대한 개입 시기

와 프로그램 구성이 보다 효율적으로 제시될 것으로 기대된다.

본 연구의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남녀 청소년의 부모, 교사 및 친구애착의 발달적 경향은 어떠한가?

둘째, 학년별로 청소년의 부모, 교사, 친구에 대한 애착은 남학생과 여학생 간에 차이가 있는가?

셋째, 남녀 청소년의 학년별 비행행동의 분포는 어떠한가?

넷째, 남녀 청소년의 학년별로 부모, 교사 및 친구애착이 비행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가?

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한국청소년패널조사(Korea Youth Panel Survey, KYPS)의 패널1 (중고등학교 대상, 총 3449명) 자료를 모두 활용하였다. 이는 한국청소년 정책연구원의 중단설계자료로서 1차년도를 기준으로 하였을 때, 중학교 2학년을 대상으로 2003-2006년까지,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에서 반복적으로 추적조사를 실시한 자료이다. 따라서 본 연구의 조사대상자들은 중학교 2, 3학년, 고등학교 1, 2학년들이다.

표집방법은 층화다단계집락표집이었다.

2. 조사도구

1) 부모애착

한국청소년패널조사 중2, 중3, 고1, 고2의 설문지 문항 중 '부모애착' 으로 구성된 6문항을 각각 사용하였다. 문항의 내용은 부모님과과의 정서적인 관계의 질과 의사소통과 관련된 문항들로서 '부모님과 나는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려고 노력하는 편이다.' '부모님은 나에게 늘 사랑과 애정을 보이신다.' '부모님과 나는 서로를 잘 이해하는 편이다.' '부모님과 나는 무엇이든 허물없이 이야기하는 편이다.' '나는 내 생각이나 밖에서 있었던 일들을 부모님께 자주 이야기하는 편이다.' '부모님과 나는 대화를 자주 나누는 편이다.' 이다. 각 문항들은 5점 리커트 (Likert) 척도이며 1점 '전혀 그렇지 않다'부터 5점 '매우 그렇다'로 응답할 수 있다. 시기별로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 Cronbach's α

계수는 중 2 시기 .859, 중 3 시기 .882, 고 1 시기 .882, 고 2 시기 .891, 전체 .935였다.

2) 교사에착

한국청소년패널조사 중2, 중3, 고1, 고2의 설문지 문항 중 '선생님애착' 으로 구성된 3문항을 각각 사용하였다. 문항의 내용은, 교사와의 정서적인 유대감을 묻는 '나는 선생님께 내 고민을 털어놓고 이야기할 수 있다.' '선생님은 나에게 사랑과 관심을 보여 주신다.' '나는 장래에 선생님과 같은 사람이 되고 싶다.' 이다. 각 문항은 5점 리커트 척도이며 1점 '전혀 그렇지 않다'부터 5점 '매우 그렇다'로 응답할 수 있다. 시기별로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 Cronbach's α 계수는 중 2 시기 .702, 중 3 시기 .725, 고 1 시기 .734, 고 2 시기 .782, 전체 .782였다.

3) 친구애착

한국청소년패널조사 중2, 중3, 고1, 고2의 설문지 문항 중 '친한 친구애착' 으로 구성된 4문항을 각각 사용하였다. 여기서 '친한 친구' 는 '평소 잘 어울리고 친하게 지내는 사람들로 제시되었다. 문항의 내용은, 그 친구들과의 정서적인 유대감을 묻는 '나는 그 친구들과 오랫동안 친구로 지내고 싶다.' '나는 그 친구들과 함께 있으면 즐겁다.' '나는 그 친구들과 같은 생각과 감정을 가지려고 노력하는 편이다.' '나는 그 친구들과 서로의 고민을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편이다.' 이다. 각 문항은 5점 리커트 척도이며 1점 '전혀 그렇지 않다'부터 5점 '매우 그렇다'로 응답할 수 있다. 시기별로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 Cronbach's α 계수는 중 2 시기 .759, 중 3 시기 .829, 고 1 시기 .824, 고 2 시기 .819, 전체 .860이었다.

4) 비행

한국청소년패널조사의 중2, 중3, 고1, 고2의 설문지 문항 중 '본인일탈경험'으로 구성된 14문항을 사용하였다. 각 문항들은 비행의 종류를 나타내고 있으며 문항의 예로 담배 피우기, 술 마시기, 무단결석, 가출경험, 성관계 경험, 패싸움, 남의 돈이나 물건을 빼기(뺑뺑기), 다른 친구를 집단따돌림(왕따)시키기 등이 있다. 각 문항들은 '전혀 없다' 와 '있다' 로 구성되었으며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 Cronbach's α 계수는 중 2 시기 .706, 중 3 시기 .723, 고 1 시기 .663, 고 2 시기 .634, 전체 .854 였다.

3. 자료 분석

수집된 자료는 SPSS 12.0을 이용하여 빈도분석, 기술통계, 독립표본 t-test, 상관관계 및 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Ⅲ. 연구결과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1차년도(2003년)를 기준으로 한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간략히 제시하면 <표 1>과 같다. 성별은 남녀 각각 50%씩이었으며 출생년도는 1989년생이 78.2%로 가장 많았다. 아버지 교육수준은 고졸 43.8%, 대졸 30.3%였고, 어머니 교육수준은 고졸 57.8%, 대졸 18.3%였다. 가구 월 평균 소득은 101-200만원 이하가 32.2%, 201-300만원 이하가 28.8%였다.

2. 남녀 청소년의 부모, 교사 및 친구애착의 발달적 경향

학년별 남녀 청소년의 부모, 교사 및 친구애착의 평균과 표준편차가 <표 2>에 제시되어 있으며 남녀 각 애착변인들의 발달적 경향은 [그림 1], [그림 2], [그림 3]을 통해 파악할 수 있다.

<표 2> 혹은 [그림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청소년의 부모애착은 남녀 모두 중학생 때에는 애착점수가 상승하였으나, 고등학생이 되어서는 중학교 때만큼의 상승은 보이지 않았다.

모든 시기에서 여학생의 부모애착평균이 남학생보다 더 높았다.

<표 2> 혹은 [그림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청소년의 교사애착은 남학생의 경우 중 3까지 증가하다가 이후로는 별다

<표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구분	빈도(명)	퍼센트(%)
성별	남학생	1725	50
	여학생	1724	50
출생년도	1988년생이하	8	0.2
	1989년생	2697	78.2
	1990년생	744	21.6
아버지 교육수준	중졸이하	403	11.9
	고졸	1481	43.8
	전문대졸	235	7.0
	대졸	1025	30.3
어머니 교육수준	대학원 이상	236	7.0
	중졸이하	577	17.2
	고졸	1942	57.8
	전문대졸	165	4.9
가구 월 평균 소득	대졸	616	18.3
	대학원 이상	57	1.6
	100만원 이하	305	9.5
	101-200만원	1042	32.2
201-300만원	935	28.8	
	301-400만원	454	14
	401만원이상	505	15.5

른 변화 없이 대동소이 하였다. 반면, 여학생의 경우 고 1까지 계속하여 증가하다가 그 이후로는 대동소이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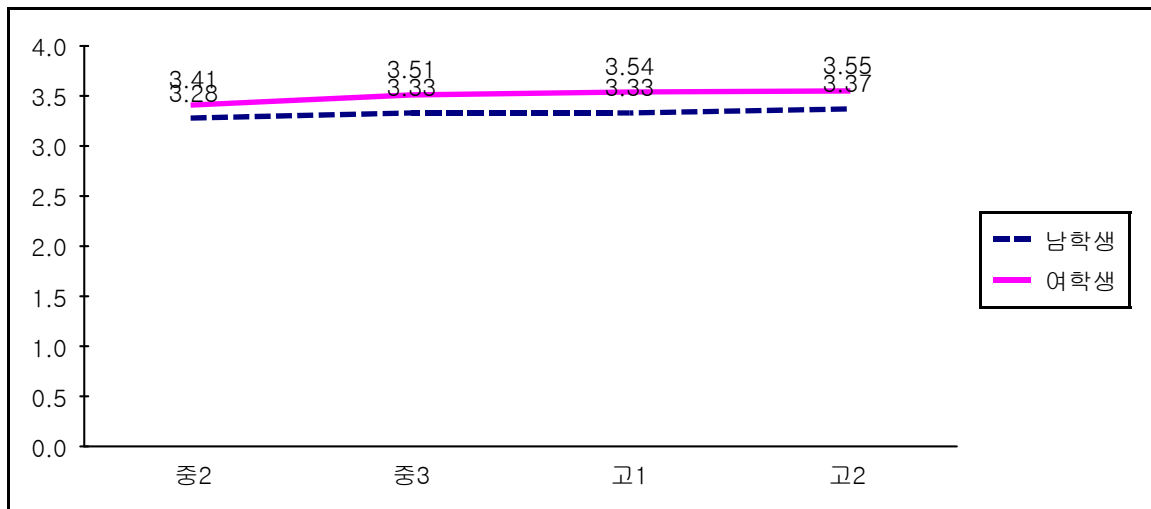
교사 애착평균은 부모애착과 달리 모든 시기에서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더 높았다.

<표 2> 혹은 [그림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청소년의 친구애착은 남학생의 경우 고 1까지 계속하여 증가하다가 그 이후는 대동소이 하였다. 반면, 여학생의 경우 고 1까지 계속하여 증가하다가 고 2가 되어서는 오히려 애착이 감소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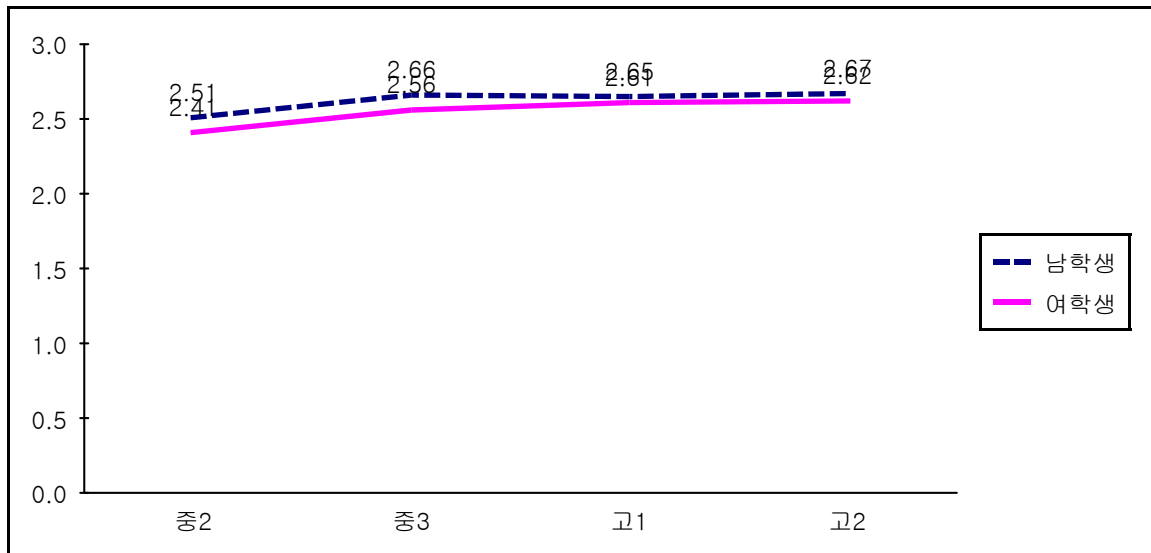
친구애착평균은 모든 시기에서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더 높았다.

<표 2> 학년별 남녀 청소년의 부모, 교사 및 친구애착의 평균과 표준편차

남학생	중2 M(SD)	중3 M(SD)	고1 M(SD)	고2 M(SD)
부모 애착	3.28(0.75)	3.33(0.75)	3.33(0.70)	3.37(0.72)
교사 애착	2.51(0.78)	2.66(0.80)	2.65(0.80)	2.67(0.84)
친구애착	3.98(0.68)	4.08(0.71)	4.17(0.66)	4.19(0.64)
여학생	중2 M(SD)	중3 M(SD)	고1 M(SD)	고2 M(SD)
부모 애착	3.41(0.80)	3.51(0.76)	3.54(0.74)	3.55(0.77)
교사 애착	2.41(0.86)	2.56(0.84)	2.61(0.82)	2.62(0.90)
친구애착	4.13(0.62)	4.25(0.62)	4.32(0.59)	4.27(0.61)



[그림 1] 남녀 청소년의 부모애착에 대한 발달적 경향



[그림 2] 남녀 청소년의 교사애착에 대한 발달적 경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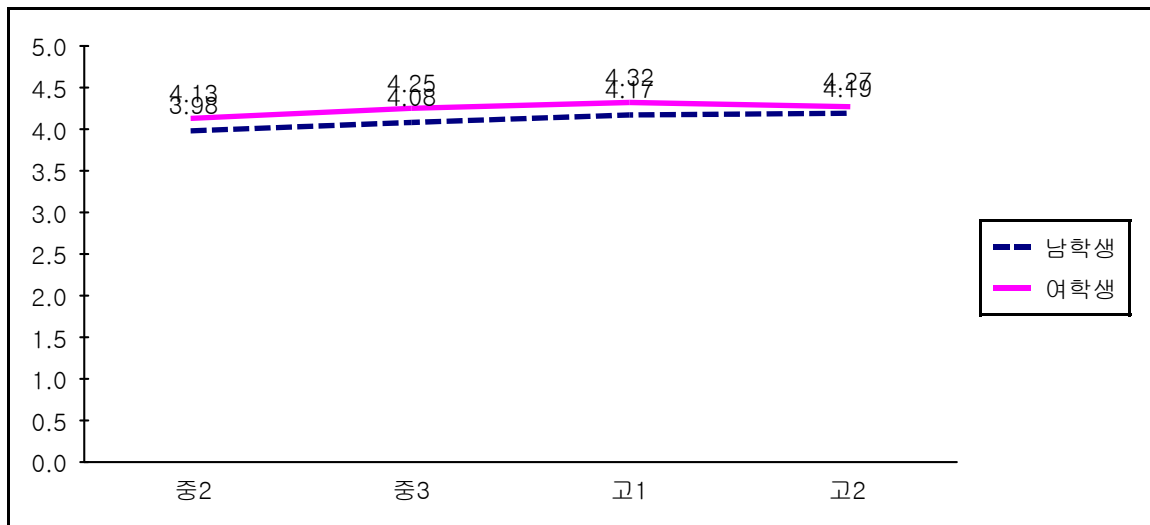
대체적으로 남녀 청소년의 모든 애착은 고등학생이 되어서는 중학생 때만큼의 애착 증가가 나타나지 않았으며 오히려 감소한 경우도 있었다.

한편, 부모애착과 친구애착의 경우, 모든 시기에서 전반적으로 남학생보다 여학생의 애착점수가 더 높았으며, 반면 교사애착의 경우 모든 시기에서 전반적으로 여학생보다 남학생의 애착점수가 더 높았다. 이러한 성별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한지 검증하고자 독립표본 t-test를 실시하였는데, 그 결과는 <표 3>과 같다. 부모애착과 친구애착의 경우, 모든 시기에서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유의하게 높았으며(부모애착: 중 2 t = -4.886, 중 3 t = -6.646, 고 1 t = -7.947, 고 2 t = -6.612, 모두 p < .001, 친구애착: 중 2 t = -6.437, 중

3 t = -7.116, 고 1 t = -6.724, 고 2 t = -3.863, 모두 p < .001) 반면 교사애착의 경우 중학교 때에는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높았으나(중 2 t = 3.604, p < .001, 중 3 t = 3.277, p < .01) 고등학생이 되어서는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3. 변인 간 상관관계

본 연구에서 검증하고자 하는 변인인 부모, 교사 및 친구 애착과 비행 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보기 위해 Pearson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는데, 그 결과는 <표 4>, <표 5>, <표 6> 및 <표 7> 과 같다.



[그림 3] 남녀 청소년의 친구애착에 대한 발달적 경향

<표 3> 남학생과 여학생의 부모, 교사 및 친구애착 차이에 대한 학년별 t-test 검증결과

부모애착	성별	M(SD)	t
중 2	남학생	3.28(0.75)	-4.886***
	여학생	3.41(0.80)	
중 3	남학생	3.33(0.75)	-6.646***
	여학생	3.51(0.76)	
고 1	남학생	3.33(0.70)	-7.947***
	여학생	3.54(0.74)	
고 2	남학생	3.37(0.72)	-6.612***
	여학생	3.55(0.77)	
교사애착	성별	M(SD)	t
중 2	남학생	2.51(0.78)	3.604***
	여학생	2.41(0.86)	
중 3	남학생	2.66(0.80)	3.277**
	여학생	2.56(0.84)	
고 1	남학생	2.65(0.80)	1.204
	여학생	2.61(0.82)	
고 2	남학생	2.67(0.84)	1.744
	여학생	2.62(0.90)	
친구애착	성별	M(SD)	t
중 2	남학생	3.98(0.68)	-6.437***
	여학생	4.13(0.62)	
중 3	남학생	4.08(0.71)	-7.116***
	여학생	4.25(0.62)	
고 1	남학생	4.17(0.66)	-6.724***
	여학생	4.32(0.59)	
고 2	남학생	4.19(0.64)	-3.863***
	여학생	4.27(0.61)	

p<.01 *p<.001

<표 4> 중 2 남녀 청소년의 부모, 교사 및 친구애착과 비행에 대한 상관분석 결과

남학생	부모애착	교사애착	친구애착	비행
부모애착	1			
교사애착	.283**	1		
친구애착	.163**	.082**	1	
비행	-.151**	-.138**	.079**	1
여학생	부모애착	교사애착	친구애착	비행
부모애착	1			
교사애착	.283**	1		
친구애착	.144**	.069**	1	
비행	-.189**	-.166**	.071**	1

**p<.01

<표 5> 중 3 남녀 청소년의 부모, 교사 및 친구애착과 비행에 대한 상관분석 결과

남학생	부모애착	교사애착	친구애착	비행
부모애착	1			
교사애착	.195**	1		
친구애착	.142**	.126**	1	
비행	-.127**	-.055*	.076**	1
여학생	부모애착	교사애착	친구애착	비행
부모애착	1			
교사애착	.201**	1		
친구애착	.191**	.096**	1	
비행	-.139**	-.090**	.081**	1

*p<.05 **p<.01

<표 6> 고 1 남녀 청소년의 부모, 교사 및 친구애착과 비행에 대한 상관분석 결과

남학생	부모애착	교사애착	친구애착	비행
부모애착	1			
교사애착	.159**	1		
친구애착	.186**	.062*	1	
비행	-.118**	-.101**	.103**	1
여학생	부모애착	교사애착	친구애착	비행
부모애착	1			
교사애착	.172**	1		
친구애착	.217**	.053*	1	
비행	-.163**	-.060*	.015	1

*p<.05 **p<.01

<표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중 2 남녀 모두 부모, 교사 및 친구애착이 모두 비행과 유의한 상관을 보였는데(모두 p<.01), 부모와 교사애착은 비행과 부적 상관이, 친구애착과 비행은 정적상관이 나타났다.

<표 5>에는 중 3 남녀 청소년의 변인 간 상관관계가 나타나있다. 중 3 남녀 모두 중 2와 마찬가지로 부모, 교사 및 친구애착이 모두 비행과 유의한 상관을 보였는데, 부모와 교사애착은 비행과 부적 상관이(남학생 부모애착

p<.01, 교사애착 p<.05, 여학생 부모애착 및 교사애착 p<.01), 친구애착과 비행은 정적상관이 나타났다(남녀 모두 p<.01).

<표 6>에는 고 1 남녀 청소년의 변인 간 상관관계가 나타나있다. 고 1 남학생의 경우 부모, 교사 및 친구애착이 모두 비행과 유의한 상관을 보였는데(모두 p<.01), 부모와 교사애착은 비행과 부적 상관이, 친구애착과 비행은 정적상관이 나타났다.

<표 7> 고 2 남녀 청소년의 부모, 교사 및 친구애착과 비행에 대한 상관분석 결과

남학생	부모애착	교사애착	친구애착	비행
부모애착	1			
교사애착	.219**	1		
친구애착	.150**	.088**	1	
비행	-.099**	-.046	.169**	1
여학생	부모애착	교사애착	친구애착	비행
부모애착	1			
교사애착	.144**	1		
친구애착	.151**	.010	1	
비행	-.131**	-.126**	.042	1

*p<.05 **p<.01

<표 8> 남녀 청소년의 비행경험 여부

남학생	비행경험 없음(%)	비행경험 있음(%)	여학생	비행경험 없음(%)	비행경험 있음(%)
중 2	50.3	49.7	중 2	48.1	51.9
중 3	63.9	36.1	중 3	60.7	39.3
고 1	56.7	43.3	고 1	59.8	40.2
고 2	47.4	52.6	고 2	56.0	44.0

반면, 여학생의 경우, 남학생과 달리 친구애착에서는 유의한 상관이 나타나지 않았고 부모(p<.01) 및 교사애착(p<.05)에서 각각 비행과 유의한 부적상관이 나타났다.

<표 7>에는 고 2 남녀 청소년의 변인 간 상관관계가 나타나있다. 고 2 남학생의 경우 부모 및 친구애착에서 비행과 유의한 상관을 보였는데(모두 p<.01), 부모애착은 비행과 부적 상관이, 친구애착과 비행은 정적상관이 나타났다.

반면, 여학생의 경우, 남학생과 달리 부모 및 교사애착에서 각각 비행과 유의한 부적상관이 나타났다(모두 p<.01).

중 2부터 고 2까지 남녀 모두 전반적으로 비행과 부모 애착 및 교사애착은 부적 상관을 나타냈으며, 친구애착과는 정적 상관을 보였다.

4. 부모, 교사 및 친구 애착이 비행에 미치는 영향

남녀 청소년의 부모, 교사 및 친구 애착이 비행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먼저 어느 정도의 남녀 청소년이 적어도 1가지 이상의 비행을 하였는지 살펴보기 위해 빈도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는 <표 8>에 나타나있으며 백분율로 제시하였다. 남녀 모두 중 2학년 때에는 비행 경험이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가 절반씩이었으나,

중 3과 고 1학년 때에는 비행경험이 없는 경우가 비행경험이 있는 경우보다 많았다. 고 2학년이 되어서 남학생은 비행경험이 있는 경우가 없는 경우보다 더 많아졌으나 여학생의 경우 여전히 비행경험이 없는 경우가 더 많았다.

위와 같이 어느 정도의 남녀 청소년이 비행경험을 하였는지 살펴본 후, 부모, 교사 및 친구애착이 남녀 청소년의 비행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검증하기 위해 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이 때, 인구통계학적 변인 중 가정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청소년의 비행에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결과를 바탕으로(박영신, 김의철, 1998; MacNeil, et al., 2000) 가구 월평균 소득과 부모의 교육수준을 통제변수로 설정하였다. 본 연구에서 가구 월평균 소득은 개방형으로 코딩되었으며 아버지 교육수준과 어머니 교육수준은 무학부터 대학원 박사까지 8점 척도로 측정되었다. 이 중 아버지 교육수준과 어머니 교육수준에서 다중공선성의 위험이 나타나 하나로 묶어 '부모 교육수준'으로 설정하였다. 따라서, 가구 월평균 소득과 부모의 교육수준을 통제변수로 가정하여 부모, 교사 및 친구애착이 비행에 미치는 영향을 탐색하였다. 각 시기마다 Durbin-Watson 값이 1.916 - 2.071 사이로 나타나 모두 자기상관의 위험은 없었으며 VIF 지수 역시 모두 10이하로 나타나(1.024 - 1.308) 다중공선성의 위험도 없었다. 중회귀분석의 결과는 <표 9>, <표 10>, <표 11> 및 <표 12>에 제시되어 있다.

<표 9>에서 보는 바와 같이, 중 2 남학생의 경우, 부모

<표 9> 중 2 부모, 교사 및 친구애착이 비행에 미치는 영향

남학생	비행			여학생	비행		
	B	β	t		B	β	t
가구소득	.000	.047	1.771	가구소득	.000	.000	.015
부모 교육수준	-.001	-.028	-1.051	부모 교육수준	-.001	-.019	-.687
부모애착	-.021	-.138	-5.285***	부모애착	-.026	-.173	-6.700***
교사애착	-.014	-.099	-3.842***	교사애착	-.018	-.126	-4.989***
친구애착	.018	.111	4.430***	친구애착	.019	.098	3.949***
R ² = .044 F=14.582***				R ² = .060 F=19.957***			

***p<.001

<표 10> 중 3 부모, 교사 및 친구애착이 비행에 미치는 영향

남학생	비행			여학생	비행		
	B	β	t		B	β	t
가구소득	.000	.014	.478	가구소득	-.000	-.012	-.420
부모 교육수준	.000	-.009	-.328	부모 교육수준	.000	.006	.220
부모애착	-.016	-.122	-4.482***	부모애착	-.019	-.151	-5.547***
교사애착	-.005	-.041	-1.539	교사애착	-.007	-.062	-2.313*
친구애착	.013	.094	3.539***	친구애착	.020	.133	4.981***
R ² = .024 F=6.828***				R ² = .039 F=11.385***			

*p<.05 ***p<.001

<표 11> 고 1 부모, 교사 및 친구애착이 비행에 미치는 영향

남학생	비행			여학생	비행		
	B	β	t		B	β	t
가구소득	-.000	-.015	-.540	가구소득	-.000	-.039	-1.324
부모 교육수준	-.002	-.043	-1.533	부모 교육수준	.000	-.011	-.357
부모애착	-.016	-.117	-4.345***	부모애착	-.017	-.160	-5.815***
교사애착	-.009	-.080	-3.027**	교사애착	-.004	-.045	-1.689
친구애착	.019	.135	5.111***	친구애착	.007	.053	1.990*
R ² = .038 F=11.167***				R ² = .033 F=9.544***			

*p<.05 **p<.01 ***p<.001

애착($\beta = -.138, p < .001$), 친구애착($\beta = .111, p < .001$), 교사애착($\beta = -.099, p < .001$) 순으로 비행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 반면, 여학생의 경우, 남학생과 달리 부모애착($\beta = -.173, p < .001$), 교사애착($\beta = -.126, p < .001$), 친구애착($\beta = .098, p < .001$) 순으로 비행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남녀 모두 부모 및 교사애착은 비행에 부적으로, 친구애착은 정적으로 영향을 미쳤으며 통제변수들의 영향은 나타나지 않았다.

<표 10>에는 중 3 남녀 청소년에 대한 결과가 제시되어 있다. 중 3 남학생의 경우, 부모애착($\beta = -.122, p < .001$), 친구애착($\beta = .094, p < .001$) 순으로 비행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 반면, 여학생의 경우, 남학생과 달리 부모애착($\beta =$

$-.151, p < .001$), 친구애착($\beta = .133, p < .001$), 교사애착($\beta = -.062, p < .05$) 순으로 비행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중학교매와 마찬가지로 남녀 모두 부모 및 교사애착은 비행에 부적으로, 친구애착은 정적으로 영향을 미쳤으며 통제변수들의 영향도 나타나지 않았다.

<표 11>에는 고 1 남녀 청소년에 대한 결과가 제시되어 있다. 고 1 남학생의 경우, 친구애착($\beta = .135, p < .001$), 부모애착($\beta = -.117, p < .001$), 교사애착($\beta = -.080, p < .01$) 순으로 비행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 반면, 여학생의 경우, 남학생과 달리 교사애착의 영향은 나타나지 않았고, 부모애착($\beta = -.160, p < .001$), 친구애착($\beta = .053, p < .05$) 순으로 비행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표 12> 고 2 부모, 교사 및 친구애착이 비행에 미치는 영향

남학생	비행			여학생	비행		
	B	β	t		B	β	t
가구소득	-.000	-.031	-1.099	가구소득	-.000	-.038	-1.299
부모 교육수준	.000	-.010	-.355	부모 교육수준	.000	-.012	-.396
부모애착	-.014	-.113	-4.192***	부모애착	-.013	-.138	-5.076***
교사애착	-.003	-.030	-1.124	교사애착	-.009	-.112	-4.253***
친구애착	.027	.191	7.251***	친구애착	.008	.070	2.657**
R ² = .047 F=13.811***				R ² = .042 F=12.418***			

p<.01 *p<.001

중학교때와 마찬가지로 남녀 모두 부모 및 교사애착은 비행에 부적으로, 친구애착은 정적으로 영향을 미쳤으며 통제변수들의 영향 역시 나타나지 않았다.

<표 12>에는 고 2 남녀 청소년에 대한 결과가 제시되어 있다. 고 2 남학생의 경우, 친구애착($\beta = .191, p < .001$), 부모애착($\beta = -.113, p < .001$) 순으로 비행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 반면, 여학생의 경우, 남학생과 달리 부모애착($\beta = -.138, p < .001$), 교사애착($\beta = -.112, p < .001$), 친구애착($\beta = .070, p < .01$) 순으로 비행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이전 시기들과 마찬가지로 남녀 모두 부모 및 교사애착은 비행에 부적으로, 친구애착은 정적으로 영향을 미쳤으며 통제변수들의 영향도 나타나지 않았다.

이상과 같이, 여학생은 중고등학교 모두에서 부모애착이 비행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반면, 남학생은 중학교 때는 부모 애착, 고등학교 때는 친구애착이 비행에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

한편, 부모애착과 교사애착은 모두 비행에 부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쳐 부모와 교사와의 관계가 부정적일수록 비행은 더 많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친구애착의 경우 비행에 정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쳐 친구와의 관계가 정서적으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을수록 비행 수준이 높아졌다.

VI. 결론 및 논의

본 연구에서는 남녀 청소년의 비행에 부모, 교사 및 친구애착은 어떠한 영향을 주며 남녀 청소년의 학년에 따라 비행에 대한 부모, 교사 및 친구애착의 상대적 영향력은 어떻게 달라지는지 살펴보고자 하였다.

그 결과, 첫째, 남녀 청소년의 부모, 교사 및 친구애착의 발달적 경향은 남녀 청소년 모두 대체적으로 중학교

시기에서는 각 애착점수들이 증가하다가 고등학교에 들어가면서부터는 큰 증가를 보이지 않거나 오히려 감소하고 있다. 이는 청소년들이 점차 성년기에 접어들 준비를 하면서 자립심이 생겨나고, 스스로의 생각과 사고 혹은 판단이 더 중요해지고 있다는 것을 반영한다.

각 애착에 대하여 성차가 나타났는데, 부모애착과 친구애착의 경우 중학교, 고등학교 모두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유의하게 애착점수가 높았다. 반면, 교사애착의 경우 전반적으로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더 높게 나타났으나 이러한 차이는 중학교 때에만 유의하였다. 이는 일반적으로 남성의 경우 자신의 성취에 가치를 더 두는 반면, 여성의 경우 친밀함 혹은 타인과의 관계에 더 의미를 두는 것으로 설명할 수 있다. 이 시기에 있어 성취는 학업이 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남학생들의 교사애착이 더 높게 나타났을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교사애착에 대한 성별차이는 중학교 시기까지만 유의하였는데 고등학생이 되어서는 누구에게나 학교생활과 학업의 중요성이 대단히 커지게 되므로 달리 성차가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둘째, 남녀 청소년의 부모, 교사 및 친구 애착이 비행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각 학년별로 살펴보았다. 그 결과, 남학생의 경우 중학교 때는 부모 애착, 고등학교 때는 친구애착이 비행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반면, 여학생은 모든 학년에서 부모애착이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 이는 비행에 대한 가족 유대의 영향이 남학생보다 여학생에게 더 크게 나타난 이상문(2005)의 연구결과와 일치하며 학년에 따라 혹은 성별에 따라 남녀 청소년의 비행에 대한 개입 방향이 적절히 다르게 이루어져야 함을 시사한다. 여학생의 경우 학년과 무관하게 비행에 있어서 부모와의 관계가 가장 중요한 의미를 가지며 남학생의 경우 학년이 높아질수록 친구와의 관계가 비행에 더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여학생의 비행에 대한 개입은 우선적으로 부모와의 관계를 다루고 개선시키는 것에 집중해야 할 것이고 남학생의 비행에 대한 개입은 중학생인 경

우 여학생과 마찬가지로 부모와의 문제를, 고등학생인 경우 친구와의 관계를 살펴보는 것이 효율적일 수 있다.

한편, 비행에 영향을 미치는 관계에서 부모애착과 교사애착은 비행에 부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친 반면 친구애착의 경우 정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먼저, 부모애착과 비행 간 부적 관련이 나타난 것에 대하여 청소년들은 부모와의 정서적인 유대가 약할수록 비행에 노출될 위험이 커지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는 부모-자녀 관계의 여러 측면 중 자녀에 대한 부모의 애정과 수용적인 태도가 청소년들의 비행에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됨을 시사한다. 따라서, 가정에서 부모들은 청소년들을 올바르게 지도하기 위해 권위적인 자세로 일방적인 금지와 규칙을 강요하기 보다는 청소년들의 생활에 관심을 가지고 존중해주며 주기적인 가족회의 혹은 가족모임 등의 시간을 자주 가지며 자녀들의 생각과 고민을 들어주고 그들과 충분한 대화를 나누는 것이 중요하다. 때로는 청소년들의 생활방식이나 유행 등을 함께 공유해보는 시간을 적절히 가져보는 것도 청소년들의 부모에 대한 정서적 유대감을 향상시키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교사애착의 경우도 부모애착과 마찬가지로 교사와 정서적인 유대가 약할수록 청소년들이 비행을 저지를 위험이 커졌다. 따라서, 학교 현장에서 교사들은 다양한 경로를 통해 청소년들과 함께하는 시간을 많이 가져 상호 친밀감을 형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학생들과 하게 되는 기본적인 개별 상담 이외에도 점심시간 혹은 방과 후 활동 등을 통해 청소년들이 즐겨하는 운동에 함께 참여하거나, 혹은 청소년들이 고민이 있을 때 직접 대면하여 말하기 힘들어 할 경우에는 언제든지 e-mail 등 다른 수단을 활용하여서도 상담 요청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개방적인 분위기를 조성해 주어야 한다.

그러나, 이처럼 남녀 청소년들이 부모와 교사와의 관계가 부정적일 때 비행에 노출될 위험이 커진 것과는 달리 친한 친구와는 깊은 유대감을 가지고 있을수록 비행 위험이 더 크게 나타났는데, 이는 또래와의 관계에 민감한 영향을 받는 청소년기의 동조적 경향성을 잘 반영하는 결과이다. 주위 가까운 친구들이 잘못된 행동을 했을 때 자신만 그 집단에서 빠져나오기 보다는 친구들의 행동에 동조함으로써 소외에 대한 두려움을 경감시키고 친밀감을 증강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또래들과의 집단행동으로 인해 비행을 저지르는 경우에는 청소년들의 이러한 발달적 특성을 고려하여 개개인에 대해 개별적으로 개입하기보다 비행에 함께 관여하고 있는 또래무리를 대상으로 집단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한편, 이러한 연구결과들과 관련하여 본 연구에서는 몇 가지 제한점을 가진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비행에 대해 '전혀없다'와 '있다'의 두 가지 응답으로만 이루어져 비행의 빈도나 정도에 대한 제한점을 가진다. 따라서 후속연구에서는 비행에 대해 보다 심도 있게 파악해 볼 필요가 있다. 또한, 최근에는 비행의 연령이 낮아져 초등학생들의 경우에도 빈번히 일어나고 있는 실정으므로 후속연구에서는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권장된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친구 애착에 대하여 친구의 특성을 구분하지 않았다. 그러나, 애착을 맺고 있는 친구의 비행 경험 유무에 따라 친구애착과 비행 간 관계가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비행친구가 있는 집단과 없는 집단을 나누어 분석해볼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친구애착과 비행 간의 관계를 보다 면밀하게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비행에 관한 연구를 부모, 교사 및 친구에 대한 애착의 관점에서 지금까지와는 달리 종단자료를 사용하여 성별과 연령에 따른 발달적 경향성을 파악해봄에 따라 비행에 대한 효율적인 개입 방향에 대한 토대를 마련하였다. 아울러 본 연구결과를 통해 청소년 교육, 부모교육, 상담, 청소년 복지사 연수 및 정책 설정 등에 활용될 것이 기대된다.

주제어 : 부모애착, 교사애착, 친구애착, 비행

참 고 문 헌

- 기광도, 이희길 (2002). 부모의 양육방식이 자녀비행에 미치는 효과분석. *교정연구*, 16, 7-27.
- 김영희, 박영신, 김의철 (2004). 청소년의 일탈행동 무경험 집단과 경험집단의 환경, 심리, 행동 특성의 차이 분석. *아동교육*, 13(2), 201-219.
- 김인숙, 이경님 (2004). 중학생의 부모에 대한 애착, 친구지지와 행동문제. *한국가정과학회지*, 7(2), 97-113.
- 김현실 (2002). 한국 청소년 비행의 성차 분석. *대한간호학회지*, 32(4), 492-505.
- 박영신, 김의철 (1998). 청소년 비행과 성취행동. : 가정환경, 귀인양식, 건강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문제*, 4(1), 29-53.
- 박영신, 김의철 (2001). 청소년 학교폭력행동과 환경 및 심리특성과의 관계: 위탁 청소년과 중고등학생을 중심으로. *교육심리연구*, 15(2), 25-52.
- 박영신, 김의철(2004). 청소년의 인간관계와 일탈행동: 부모자녀관계, 친구관계, 교사 학생 관계를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문제*, 10(특집), 87-115.
- 심응철 (2005). 청소년 비행 예방을 위한 부모-자녀 관계의

- 효율적 모형 개발: 부모의 양육행동 및 부모·자녀 간의사소통을 중심으로, *사회과학연구*, **44**, 193-205.
- 양돈규, 임영식 (1998). 청소년의 문제행동에 미치는 사회적 지지원의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문제*, **4**(1), 55-74.
- 이경숙, 엄혜련, 정영운 (2004). 잠재된 비행청소년의 애착유형 (AAI)에 따른 아동기 양육경험과 문제행동.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6**(3), 511-532.
- 이상문 (2005). 성별에 따른 일탈행동 성장경로의 차이: 미국청소년패널조사(NYS) 자료를 중심으로. *한국사회학*, **39**(4), 162-198.
- 이은주 (2000). 청소년 비행에 대한 자아개념과 사회적 지지의 상호작용 효과, *청소년학연구*, **7**(1), 149-168.
- 이은희, 공수자, 이정숙 (2004). 청소년들의 가정, 학교, 지역의 심리사회적 환경과 학교폭력과의 관계: 분노조절과 비행친구 접촉의 매개효과,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6**(1), 123-145.
- 이주리 (2007). 부모, 선생님 및 친구애착과 일탈 및 삶에 대한 전반적 만족도, 제 4회 한국청소년패널 학술대회 자료집, 527-551.
- 이주리 (2008). 초등학교생의 부모, 교사 및 친구애착이 일탈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6**(4), 게재예정.
- Barber, B. K. (1996). Parental psychological control: Revisiting a neglected construct, *Child Development*, **67**(6), 3296 - 3319.
- Barnow, S., Lucht, M., & Freyberger, H. J. (2005). Correlates of aggressive and delinquent conduct problems in adolescence. *Aggressive Behavior*, **31**(1), 24-39.
- Bolger, K. E., Patterson, C. J. (2001). Developmental pathways from child maltreatment to peer rejection, *Child Development*, **72**(2), 549 - 568.
- Bowlby, J. (1958). The nature of the child's tie to his mother. *International Journal of Psycho-Analysis*, **39**, 350-373.
- Chapple, C. L. (2005). Self-control, peer relations, and delinquency. *Justice Quarterly*, **22**(1), 89-106.
- Hirschi, T. (1969). *Causes of delinquency*. Berkeley, CA: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 MacNeil, G. Stewart, J. C. & Kaufman, A. V. (2000). Social support as a potential moderator of adolescent delinquent behaviors, *Child and Adolescent Social Work Journal*, **17**(5), 361-379.

(2008. 3. 2 접수; 2008. 6. 10 채택)